'안중근 전쟁…' 개정판 낸

이 기 웅 열화당 대표

'안중근 정신' 젊은이들 가슴에 뿌리 내리길…

"안중근 선생은 지혜와 용기를 갖춘 분 이었습니다. 10년이 지난 이 시점에 새로이 책을 선보이는 이유는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이들, 특히 젊은이들과 더불어 '안중근 정신'을 나누기 위해섭니다. 그 분의 생생한 육성이야말로 젊은이들에게 참다운 미래를 그려 나가게 할 멘토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안중근 전쟁, 끝나지 않았다'개정판을 낸 이기웅(69·열화당 대표)씨는 10일 '저자와의 만남'(광주 충장서림) 행사에 앞서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안중근 정신의 '민족 교양화'를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번 개정판과 관련, 올해가 우리의 정신적 스승인 안중근 선생의 의거 100주년을 맞는 의미있는 해인 만큼 초판의 일부 오류를 정정하고 의거 관련 공판 자료와 사진 자료를 새로이 넣어 출간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이 대표는 1980년대 말 몇몇 출판인과 함께 경기도 파주 출판도시를 입안할 때의 경험에 대해 이야기했다.

"'안중근…'초판을 낼 무렵 출판도시는 기반공사를 마치고 건축공사를 접어들던 시기였습니다. 개성이 강한 출판인들이 단합해서 해나가는 일이라

"광주 문화수도 잘 마무리 '문화의 꽃' 활짝 피워야"

헤쳐나가야 할 고난이 많았죠. 이때 운명적으로 추켜 든 게 '안중근 정신' 입니다. 도시를 완성할 때까지 이 정신으로 임하자고 다짐을 했죠. 이미 고인이 된 안 의사를 출판인, 건축가들이 함께 미래의 도시에 정신적 감리인(監理人)으로 모시는 행사를 가졌던 것도 그런 뜻에서죠."

이 대표는 그런 의미에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추진하고 있는 광주는 파주 출판도시의 사례를 벤치마킹할 만하다고 조언한다.

이 이시장은 "지금까지 문화도시 추진사업이 소모적이고 비효율적인 측면이 없지 않았다"며 "아시아문화전당이 문화중심도시사업을 이끌어가는 핵심인 만큼 잘 마무리해 아름다운 도시에 문화의 꽃을 피웠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또한 "경험상 볼 때 사업추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심 어린 마음가짐과 도시를 아우르는 대표 정신을 만드는 것인데 의(義)든 예(藝)든 '광주 정신'을 잘 추슬러 내는 것"이 최선이라고 강조했다.

"광주는 참 아름다운 도시"라고 거듭 말하는 이 이사장은 매력적인 도시인만큼 많은 사람이 찾는 국제적인 도시로 가꾸어 갔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 대표는 "안중근 의거 100주년, 그리고 순국 100주년이 되는 2009년과 2010년 두 해 동안 이번 책과 더불어 안중근 정신이 많은 이들의 가슴 속에 뿌리 내리길 기대한다"며 "이번 책이 국민교과서처럼 읽힐 수 있도록 널리 알리고 권장됐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출판계 원로인 이 대표는 1940년 강릉 태생으로 선교장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으며 강릉상고와 성균관대 철학과를 졸업했다. 한국출판협동조합이사장, 한국출판문화산업단지 건설 추진위원장 등을 지냈으며 한국출판문화상, 대한민국 문화예술인상, 제20회 언론출판부문 인촌상 등을 수상했다. 출판도시문화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사진=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광주비엔날레 '눈 예술상' 제정

〈Noon〉

상금 5만달러… 내년부터 격년제로 시상

예산 전시행사·홍보마케팅 등 75억 확정

광주비엔날레 재단(이하 재단)이 '눈(Noon) 예술상'을 제정해 내년부터 시상하기로 했다. 또 2010년 열리는 제8회광주비엔날레(9월3일~11월7일)의 예산이 75억원으로 확정됐다.

재단은 10일 오전 제113차 이사회를 열고 광주비엔날레 참여작가 중 창의적 실험정신이 돋보이는 작가들을 선정해 격년제로 '눈 예술상'을 시상키로 했다.

재단의 미술전문지 '눈'에서 이름을 딴 '눈 예술상'은 중견작가를 대상으로 한 '눈 예술상'과 신인작가 대상인 '눈 후원상'으로 나눠 선정하게 된다.

예술상 수상자에게는 5만 달러(USD), 후원상 수상자에게는 2만 달러의 상금과 상패가 주어진다. 첫 시상식은 오는 2010년 9월3일 제8회광주비엔날레 개막식장에서 이뤄진다.

이를 위해 국내·외 미술계 인사 5인 내외로 심사위원회를 구성,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수상작은 기증받아 재단이 영구 보존할 계획이다.

또 제8회광주비엔날레의 예산을 지난 7회 대회보다 5억9천여만원 줄어든 75억원으로 확정했다. 항목별로 보면, 전시 행사 준비에 37억3천900만원(49.8%)이 편성됐고, 홍보·마케팅사업에 11억5천400만원(15.3%), 인건비성 경비 11억1천500만원(14.8%), 개·폐막행사 등에 7억원(9.3%) 등이 쓰이게 된다.

한편 이날 제8회광주비엔날레 이사회 참석차 광주에 온 마시밀리아노 지오니 예술 총감독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내년 전시구상을 위해 20여 개국 작가들의 포트폴리오 500여개를 살펴봤고, 200여 곳의 스튜디오를 방문하는 등 리서치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또 "국제적인 큐레이터와 비평가 등 80명을 모아 네트워크를 구축했으며 이들을 통해 신진 작가와 저평가된 작가들을 추천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제8회 대회가 5·18민주화운동 30주년인 내년에 열리는 것과 관련해서 지오니 감독은 "5·18은 과거의 역사가 아닌 살아있는 의미라는 것을 보여 주고, 은유적인 형태로 그 의미를 표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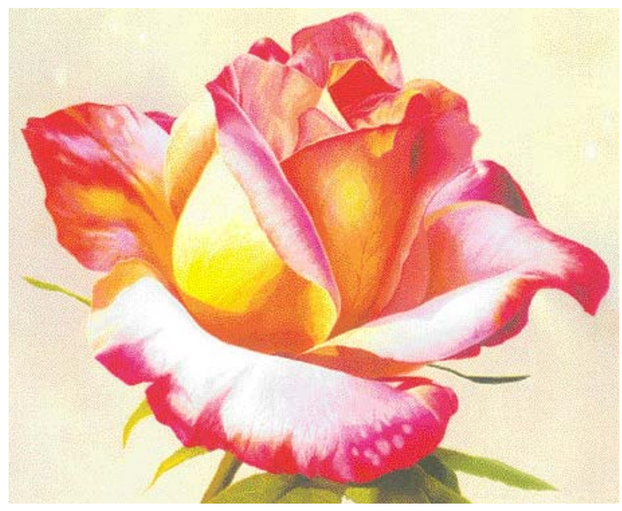
꽃의 생명력 통해 인생 덧칠

강동권 첫 개인전 광주신세계갤러리

꽃의 강렬한 색채를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서양화가 강동권(40)씨가 오는 14일까지 광주신세계갤러리에서 첫 개인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서 강씨는 꽃을 사실적으로 표현한 '장미' 시리즈를 선보인다. 꽃은 많은 작가들이 즐겨 그리는 소재인 반면 그 만큼 작가의 개성을 담은 작품을 표현내기가 쉽지 않다. 그런 점에서 화려한 색감과 생생한 터치로 표현한 그의 꽃들은 강한 인상을 남기기에 충분하다.

1960년대 미국의 극사실주의(Hyper realism)를 연상케 하는 화면속의 꽃들은 화려하다 못해 눈이 시릴 정도로 강렬하다. 빨강, 노랑, 파랑 등의 원색을 여러 번 덧칠해가며 꽃잎 사이를 파고드는 빛과 꽃잎의 그림자까지 선명하게 표현했다. 수줍게 꽃잎을 연 장미의 아름다움과 꽃잎에 아슬아슬하게 맺혀 있는 이슬도 섬세하게 그려졌다.



'장미'

또 물감이 번지면서 만들어 내는 색의 변주를 통해 꽃의 다양한 아름다움을 포착했다.

국내외 아트페어 등에서 주목받은 그의 개인전이 늦어진 것은 창작에 대한 열정 때문이다. 한송이 꽃을 피우기 위해 치열한 시간을 보낸 작가의 고뇌를 느낄 수 있다. 그는 "작가로서의 정체성을 찾고,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전시회를 미뤄왔다"며 "꽃이 가지는 생명력, 그 꽃이 피고 지기까지의 과정을 통해 인생을 표현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조선대 미술대학을 졸업한 뒤 서울아트페어, 상하이 아트페어, 베이징아트페어에 참여했고 서울, 광주, 부산 등지를 오가며 20여회의 단체전에 참여했다. 문의 062-360-1630. /오광록기자 kroh@

'강숙자오페라 라인' 대한민국오페라 대상

'강숙자오페라 라인'이 대한민국 오페라 대상에서 소극장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지난 8일 서울 한국언론재단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 2회 대한민국 오페라 대상'시상식에서 강숙자 오페라 라인은 지난 9월 제 13회 정기공연 작품으로 올린 도니제티의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와 도니제티의 '초인종'으로 영광을 안았다.

전남대 음악학과 강숙자 교수〈사진〉가 이끄는 '강숙자 오페라 라인'은 지난 2001년 창단 후 매년 다양한 작품을 무대에 올리며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대한민국오페라 대상은 대한민국 오페라연합회, (사)김자경오페라단 등이 공동 주최하는 행사로 전체 대상은 서울오페라앙상블의 '모세'가 받았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목포출신 소리꾼 이지오 '심청가' 발표회

서편제 박동실제 '심청가' 발표회가 11일 오후 3시 유·스퀘어문화관 동산아트홀에서 열린다.

이날 무대에 서는 이는 목포 출신 소리꾼 이지오(64·사진)씨. 박동실 선생에게 소리를 배웠던 장월중순을 사사한 이씨는 1996년 열린 전국판소리 경연대회 명창부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으며 현재 이산판소리고법전수관에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다.

이씨는 '심청가' 중 '초앞부터 가군의 대목'을 들려주며 김현란·김지연 씨가 '범피중류 대목'과 '심봉사 눈뜨는 대목'을 선사한다.

이날 공연에서는 이지오 명창의 삶과 소리를 담은 영상물 '오래된 북에 스민 흰그늘'도 상영된다. 고수는 박재철·양신승씨며 감행석씨가 김일구류 아쟁 산조를 들려준다. 문의 062-360-8431.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